

‘분단과 성적 담론, 비주류 경제해법, 도발적 문화비평’

《남과 북 뭉치면 죽는다》 《꿈꾸는 책들의 도시》 《20세기 한국소설》 《유혹의 심리학》과 《섹스의 진화》 《열하의 피서산장》 《피짜경제학》

6·25를 상기해서인지 지난달 하순 대부분 일간지들은 서울대 박태균 교수의 《한국전쟁》과 같은 대학에서 펴낸 《남과 북 뭉치면 죽는다》 등의 책에 관심을 기울였다. 특히 6월 24일자 <한겨레>는 “지금까지의 감상적 통일론과 경제교류를 통한 점진적 통일을 꿈꾸는 기능론적 통일론의 허구성을 극명하게 보여준다며, ‘햇볕정책론’자들을 사납게 질타하는 데로 나아가는 태도”에 대해선 “선부른 통일론을 경계하는 거야 좋지만, 햇볕론자들 중에 한 민족이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금’ 무조건 통일해야 된다고 열 올리는 사람이 도대체 있거나 한가?”라고 되물었다. 한마디로 제목처럼 선정적이고, 새로울 게 없는 선부른 답문이란 얘기다.

《꿈꾸는 책들의 도시》역시 6월 하순 이래 언론의 주목을 받은 책이다. <경향신문>은 특히 “책을 읽는 재미는 우선 통렬한 풍자에서 나온다”고 했다. 책 속 부호하임에서 문학에이전트들이 똥똥한 야생돼지에 비유되는 대목을 들어 “절망상태에 빠져 있는 작가들에게 접근해 불리한 계약을 맺도록 억지로 종용한 다음, 그들을 마치 대필작가들처럼 무자비하게 착취하고, 마침내는 작가들에게 남아 있는 마지막 독창적인 아이디어까지 다 짜내는 작자들”로 묘사된 부분에 밑줄 그으며 재미있어 했다.

섹스와 성적 담론을 담은 《유혹의 심리학》과 《섹스의 진화》도 신문 서평자들의 구미를 동하게 한 책들이다. 《유혹의 심리학》에 대해 6월 25일자 <세계일보>는 “사랑과 유혹의 자연사를 파헤치며 유혹이 인간 본연의 감각이라고 규정한 책”이라며 “저자는 천사도 아니고 짐승도 아닌, 그렇다고 두 종류가 합쳐져 만들어진 것도 아닌 인간은 스스로 우월한 존재라고 생각하나, 짝을 찾고 집착하는 것은 동물적 감각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한다”고 따옴표를 둘러쳤다.

비슷한 테마를 내건 《섹스의 진화》에 대해 7월 8일자 <조선일보>는 “폴리처상 수상작 ‘총, 군, 쇠’와 ‘제3의 침팬지’ 등 인류 문명사의 최신 성과를 독특한 시각으로 소개해 국내 독자들에게도 잘 알려진 저자가 지구상에서 가장 특이한 섹스를 즐

기는 동물인 인간에게 현미경을 들이댄” 책이라고 소개했다. 신문은 “원시인 여성은 어떻게 수컷을 붙잡아야 할까, 현명한 해결 방법은 언제나 섹스를 할 수 있는 상태로 머무는 것이라는 등 저자의 설명은 ‘진화론’에 입각해 있다”고 해설했다.

한편 <동아일보>는 중국 역대 황제의 피서산장을 중심으로 숨가쁘게 펼쳐졌던 청대의 역사를 드라마틱하게 그려낸 다큐멘터리 《열하의 피서산장》에 대해서도 초점을 맞췄다. “이 책은 특정 공간을 통해 청대의 유장한 역사를 들여다보았다는 점이 신선하다”며 “피서산장의 역사는 청의 흥망성쇠 그 역류의 역사와 그대로 일치한다”고 보았다.

<한국일보>는 “청나라 황제의 별궁에 얽힌 권력투쟁의 역사라는 소재만으로도 눈길이 가는 데다, 웨난^{韋南}의 작품이란 두 가지만으로도 제법 구미를 당기게 하는 책”이라고 했다. 신문은 “고고학 다큐멘터리 작가로 국내에도 적잖은 팬을 갖고 있는 웨난이 열하산장의 위용을 보여주려고 이 책을 쓴 건 아니다”면서 “방어선을 몽골 내지까지 확장한다는 선언이나 다름 없는 청의 군사 외교 전략, 몰려들기 시작한 서구 세력과의 만남, 특히 황위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임투의 장면들이 드라마틱하게 전개된다”고 소개했다.

7월 2일자 <서울신문>은 스티븐 레빗의 《피짜경제학》에 흥미를 보였다. 책 내용 가운데 ‘마약판매상은 왜 어른이 되어도 부모와 함께 사는 걸까?’란 질문을 클로즈업하며, “미국의 젊은 경제학자 스티븐 레빗은 기존 경제학자들이 쓸데없는 것이라고 여기는 ‘마약 판매상의 재정분석’을 통해 마약 판매상의 가난을 경제학적으로 고찰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7월 1일자 <국민일보>는 특히 “인센티브는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많이 하고 나쁜 일을 적게 하도록 설득하는 수단으로, 사람을 움직이는 힘을 가지고 있다”며 “인센티브에는 경제적인 것 외에도 사회적·도덕적 인센티브가 있고, 사람들은 긍정적이



든 부정적이든 결정적인 순간에 다양한 인센티브에 반응하며 살고 있다"고 이 책의 모티프를 나름대로 풀이했다.

〈한겨레〉 6월 29일자 《문화의 오역》을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책은 이윤기 씨의 〈그리스로마 신화〉(전 3권)를 비롯한 5권의 저서와 〈변신 이야기〉, 〈장미의 이름〉(개정판) 등 번역서의 문제점을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다. 〈한겨레〉는 특히 “책에 의하면 이씨의 책에서 ‘가장 많이 발견되는 오류는 아이러니하게도 신의 이름’이라며 ‘대학에서 20년 이상 그리스 신화를 가르친 이 교수는 ‘이씨의 번역과 신화 해석은 엉터리’라며 ‘많이 팔린 만큼 그 피해도 커서 거의 공해 수준’”이라고 언급한 부분을 부각시켰다.

《스키너의 심리상자 열기》도 대부분 일간지들이 호기심을 보인 책이다. 〈동아일보〉는 “저자는 스키너의 ‘상자 실험’을 시작으로 혁신적이고 논쟁적이던 심리실험을 통해 인간본성에 대한 대담한 가설과 이론을 마치 한 편의 미스터리 극처럼 추궁한다”고 느낌을 전했다.

7월 16일자 〈경향신문〉은 《오랑캐의 탄생》에 대해 “중국 서북부 등 변방에서 출토된 각종 고고학적 자료와 문헌에 보이는 다양한 오랑캐 기록 등을 바탕으로 논지를 전개하며, 고대 중국 및 변방사에 관한 참신한 시각을 제공한다”고 저술의 의의를 두었다.

〈국민일보〉는 나아가 “저자는 이들이 중국의 주장처럼

중국보다 열등한 존재, 따라서 지배하고 교화해야 할 야만족이 아니라 오히려 중국에 문화를 전파하고 우월한 위치를 차지했던 시기가 있었음을 지적” 했음을 강조했다.

창비가 펴낸 《20세기 한국소설》은 거의 모든 신문이 대서특필하며, 그 내용과 저술에 들인 공력을 높이 산 책이다. 7월 4일자 〈한겨레〉는 현대 한국 중·단편소설의 중요 작품을 선별, 1차분 22권으로 먼저 나온 이 책에 대해 “한국 영화의 극장 점유율이 높은 반면, 한국 소설의 점유율은 점점 낮아지는 일종의 ‘독자의 위기’가 나타나고 있다”며 “지금 독자들이 잃어버린 한국 소설의 전통을 되찾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번 선집을 기획했다”는 창비 주간 최원식 교수(인하대)의 코멘트를 소개했다. [출판]

〈출판저널〉 편집부

● 언론이 주목한 책

《노는 만큼 성공한다》 / 《한국전쟁》 / 《피나버우쉬》 / 《자연은 알고 있다》 / 《결혼의 변화》 / 《낭만주의 뿌리》 / 《유림》 / 《마일즈 데이비스》 / 《중국 경제 성장의 비밀》 / 《우주의 구조》 / 《과학은 영광이 아니라 성찰을 필요로 한다》 / 《천재공장》 / 《나타샤 댄스》 / 《저우언라이 평전》 / 《한국의 정치개혁과 민주주의》 / 《교황 베네딕토 16세의 미래의 도전들》 / 《출생의 심리학》 / 《생각 발전소》 / 《첫 만남》 / 《개》 / 《오 자히르》 / 《달 탐험의 역사》 / 《초우량 기업의 조건》 / 《시장의 유혹, 광기의 뒷》 / 《쾌도난마 한국경제》